

한부모가정 중학생의 사회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김현미^{1*}

¹시몬정신건강병원 간호과

The effect of sociality on school adjustment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from formally broken families,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ego-resilience

Hyeon-Mi Kim^{1*}

¹Division of Nursing, Simon Mental Health Hospital

요 약 본 연구는 한부모가정 중학생의 사회성, 학교적응, 자아탄력성의 정도와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한부모가정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밝히고, 자아탄력성이 사회성과 학교적응에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하여 D광역시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정 중학생 1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집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성($r=.716$)과 자아탄력성($r=.706$)은 모두 학교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사회성과 학교적응 사이에 부분적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부모가정 중학생들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성과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find out what influences sociality on school adjustment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from formally broken families, and whether ego-resilience may have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ity and school adjustment. The participants were 147 middle school students from formally broken families in D city.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WIN 18.0. version. As a result, both sociality($r=.716$) and ego-resilience($r=.706$)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school adjustment. And also their ego-resilience played a mediating role between sociality and school adjust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programs for improving the students' sociality and ego-resilience that can influence school adjustment.

Key Words : Broken Family, Ego-resilience, School Adjustment, Sociality.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가족구조 변화와 함께 가정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실직, 이혼, 별거, 취업, 가출, 미혼모의 증가 등 여러 복합적 요인으로 한부모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한부모 가구는 2011년 9.3%인 1,639천 가구로

05년 8.6%, 10년 9.2%보다 증가하였다[1].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미혼모 등으로 편부 또는 편모, 조손 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시설에 맡겨져 청소년시절을 보내게 된다. 청소년들은 발달과정 상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자아정체감 확립이란 발달과업과 함께 입시위주의 학력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압박감 등 여

*Corresponding Author : Hyeon-Mi Kim(Simon Mental Health Hospital)

Tel: +82-10-5036-5407 email: khmhyeonmi@naver.com

Received August 19, 2013

Revised September 5, 2013

Accepted September 6, 2013

러 가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인생의 혼란기인 청소년기에 고위험 환경인 가정의 형태적 결손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가족기능 저하로 인한 정서적 불안이나 우울,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자아형성과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쳐 자신을 가치 없거나 열등하다고 생각하게 된다[2].

Jo[3]는 학교적응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일반가정 학생이 한부모가정 학생보다 학교적응을 잘하였으며, 이는 한부모가정 학생의 경우 가족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나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 및 관여도가 낮거나 결여되기 때문에 일반가정 학생보다 학교적응 수준이 낮다고 하였다.

그러나 모든 한부모가정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적응이나 사회적응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다. Masten[4]은 환경적인 스트레스와 역경, 위협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적응해 가는 아동들을 설명하기 위해 자아탄력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능력을 조절하고, 변화하는 환경에서 개연성 있는 상황적 사건에 대처하는 풍부한 적응능력이며, 인지적, 사회적, 개인적 영역에서의 문제해결에 가능한 융통성 있는 능력이라 하였다. Song[5](2005)는 자아탄력적인 청소년들은 곤경에 직면했을 때 표면화되며, 자아탄력성은 병리적인 관점보다는 건강과 장점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탄성의 속성을 가진 개념이라고 하였다. Lee[6](2004)은 학교 스트레스가 높거나,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정서적 방임수준이 높아도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학교적응력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간을 보호하는 내적 자원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동물로서 타인들과 관계를 맺으며 생활한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사회성이다. 사회성은 자아탄력성의 특성인 인간관계, 개방성과 유사하므로 자아탄력성과 사회성은 상호관계가 있다. 사회성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지각한 가정, 친구, 학교 등의 사회적 지지를 통해 얻게 되므로[7], 사회성의 발달은 학교적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학교의 적응은 청소년이 성장한 이후 사회적응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 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에서 학교는 중요한 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일반가정 학생에 비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한부모가정 학생의 학교적응에 필요한 개인적인 강점을 찾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때 자아탄력성은 인간에게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내적 자원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사회성이 자아탄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피고, 이를 통해 사회성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 자아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부모가정 중학생의 사회성, 학교적응, 자아탄력성을 파악하고, 한부모가정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밝히는 데 있으며, 이때 자아탄력성이 매개의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는 한부모가정 학생을 편견이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환경을 잘 극복하고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성 및 자아탄력성을 검토하여 결론이라는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돕는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함이다.

1.3 용어정의

1.3.1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은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하거나 이혼으로 인해 결손된, 새로운 가족 형태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학생이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등의 이유로 편부 및 편모와 살고 있는 가정을 말한다.

1.3.2 사회성

사회성은 개인이 속한 사회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타인과 더불어 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 사회에 의하여 공인된 생활태도나 행동을 배움으로써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생활능력을 의미하며[8],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행동특성의 하위 요인인 근면성, 사교성, 자주성, 준법성, 책임성, 협동성, 공감적 이해의 영역으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1.3.3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나 역경, 혹은 위협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행동 및 정서문제를 보이지 않고 건강하게 적응하여 보다 나은 긍정적 방향으로 가는 인간이 가진 속성을 말하며[9],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의 영역으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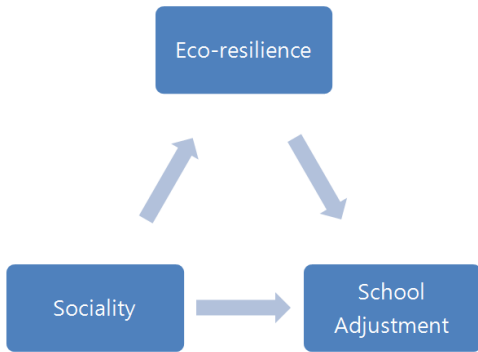
1.3.4 학교적응

학교적응은 학교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학교 규범을 성실하게 준수하며 역할을 수행해 가는 것으로[10],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인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의 영역으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한부모가정 중학생의 사회성, 학교적응 및 자아탄력성의 정도와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사회성이 학교적응과 자아탄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자아탄력성이 사회성과 학교적응 사이에 매개효과의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모형은 Fig. 1과 같이 설정하였다.



[Fig. 1] Conceptual framework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 **연구가설 1.** 한부모가정 중학생의 사회성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가설 2.** 한부모가정 중학생의 사회성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가설 3.** 한부모가정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은 사회성과 학교적응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한부모가정에 속하는 중학생이다.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률표집방법을 통해 D광역시 소재 각 7개 구 권역별로 구분하여 모집단 구성비와 표본 구성비가 일치하도록 비례 배분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선정된 학교의 보건교사와 담임교사에게 연구목적과 설문내용, 조사방법을 충분히 설명한 후 협조를 구하여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12월 2일부터 12월 21일까지이며, 설문에 응답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 설문응답이 부실한 자와 중도에 포기한 자를 모두 제외한 최종 147명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사회성 척도

Jung[8]이 학교 또는 지역사회에서 집단생활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사회성 하위 요인 7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여 개발한 35문항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사회성의 하위요인은 근면성, 사교성, 자주성, 준법성, 책임성, 협동성 및 공감적 이해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29이다.

2.3.2 자아탄력성 척도

Masten[4]의 자아탄력성 척도를 Lee, Park, Kim, Chang, Auh[9]가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적합하도록 재구성한 40문항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은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및 낙관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75이다.

2.3.3 학교적응 척도

질문지는 Lee[11]가 개발한 중학생의 학교적응 척도인 38문항을 사용하였다. 학교적응의 하위 요인은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및 학교생활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30이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version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회성, 학교적응 및 자아탄력성의 정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다.
- 사회성, 학교적응 및 자아탄력성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였다.
-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2](1986)가 제안하는 3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총 147명으로 남학생 58명(39.5%), 여

학생 89명(60.5%)이었다. 한부모가정 학생의 동거가족 구성을 보면 편부 56명(38.1%), 편모 91명(61.9%)로 이루어져 있다. 형제자매가 없는 학생이 44명(29.9%), 경제적 수준은 중인 경우가 99명(67.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학교성적에서 상인 경우는 18명(12.2%), 중인 경우는 79명(53.7%), 하인 경우는 50명(34.0%)이었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80명(54.4%)이 보통 수준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Table 1].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14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58(39.5)
	Female	89(60.5)
Grade	First	76(51.7)
	Second	71(48.3)
Living together family	Single father	56(38.1)
	Single mother	91(61.9)
Sibling	Yes	103(70.1)
	No	44(29.9)
Economic status	Good	6(4.1)
	Moderate	99(67.3)
	Poor	42(28.6)
School record	Top	18(12.2)
	Middle	79(53.7)
	Bottom	50(34.0)
Religion	Yes	75(51.0)
	No	72(49.0)
Health status	Good	61(41.5)
	Moderate	80(54.4)
	Bad	6(4.1)

3.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연구 대상자의 사회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18점으로, 하위 요인별로 근면성 2.83점, 사교성 3.25점, 자주성 3.08점, 책임성 3.03점, 협동성 3.29점, 공감적 이해 3.63점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학교적응은 5점 만점에 평균 3.37점으로, 하위 요인별로는 학교공부 3.17점, 학교친구 3.72점, 학교교사 3.26점, 학교생활 3.31점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20점으로, 하위 요인별로는 대인관계 3.44점, 활력성 3.36점, 호기심 3.22점, 낙관성 3.18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Table 2] Mean, Standard Deviation of the Variables

Variable	M±SD
Sociality	3.18±0.38
Diligence	2.83±0.60
Fellowship	3.25±0.68
Autonomy	3.08±0.60
Law-abiding liability	3.14±0.53
Responsibility	3.03±0.62
Cooperation	3.29±0.52
Empathic understanding	3.63±0.64
School Adjustment	3.37±0.50
Schoolwork	3.17±0.68
Schoolmate	3.72±0.66
School teacher	3.26±0.57
School life	3.31±0.52
Eco-resilience	3.20±0.46
Interpersonal relationship	3.44±0.55
vitality	3.36±0.67
Emotional control	2.81±0.46
Curiosity	3.22±0.60
Optimism	3.18±0.62

3.3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연구 대상자의 사회성, 학교적응,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사회성과 학교적응($r=.716$), 사회성과 자아탄력성($r=.762$),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r=.706$)간에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하위 요인별로는 근면성과 사교성, 사교성과 준법성, 사교성과 책임성, 책임성과 협동성, 준법성과 학교친구, 책임성과 학교친구, 협동성과 학교교사, 학교친구와 감정통제, 학교교사와 감정통제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학교적응의 하위 요인인 학교공부와 사회성 간에 강한 상관관계($r=.748$)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학교친구와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는 $r=.702$ 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사회성, 학교적응, 자아탄력성 간의 관련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

연구 대상자의 사회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성을 독립변수로 두고, 학교적응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1단계). 이 결과 사회성은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716, p<.01$). 즉, 대상자의 사회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회성이 학교적응에 갖는 설명력은 50.9%이었다.

[Table 3] Correlation of the Variables

	1	1-1	1-2	1-3	1-4	1-5	1-6	1-7	2	2-1	2-2	2-3	2-4	3	3-1	3-2	3-3	3-4	3-5	
1	1																			
1-1	.636**	1																		
1-2	.582**	.106	1																	
1-3	.752**	.488**	.440**	1																
1-4	.583**	.459**	.044	.242**	1															
1-5	.657**	.590**	.074	.479**	.476**	1														
1-6	.568**	.023*	.367**	.262**	.259**	.134	1													
1-7	.696**	.192*	.463**	.419**	.236**	.206*	.567**	1												
2	.716**	.422**	.448**	.559**	.314**	.450**	.339**	.638**	1											
2-1	.748**	.559**	.407**	.655**	.321**	.581**	.302**	.496**	.857**	1										
2-2	.564**	.175*	.466**	.363**	.154	.156	.456**	.716**	.812**	.566**	1									
2-3	.437**	.257**	.304**	.392**	.219**	.319**	.080	.349**	.787**	.565**	.473**	1								
2-4	.643**	.458**	.287**	.470**	.378**	.492**	.257**	.523**	.870**	.755**	.590**	.592**	1							
3	.762**	.338**	.602**	.614**	.296**	.413**	.423**	.681**	.706**	.658**	.606**	.465**	.616**	1						
3-1	.621**	.203*	.549**	.417**	.183**	.240**	.410**	.723**	.667**	.545**	.702**	.380**	.564**	.808**	1					
3-2	.683**	.296**	.606**	.586**	.187*	.349**	.365**	.610**	.667**	.594**	.635**	.411**	.562**	.888**	.686**	1				
3-3	.449**	.226**	.252**	.307**	.260**	.295**	.287**	.382**	.276**	.338**	.140	.155	.311**	.593**	.366**	.329**	1			
3-4	.565**	.306**	.442**	.584**	.209*	.306**	.193*	.443**	.534**	.495**	.361**	.446**	.492**	.784**	.532**	.669**	.352**	1		
3-5	.653**	.287**	.470**	.475**	.336**	.423**	.407**	.509**	.577**	.581**	.480**	.391**	.466**	.827**	.576**	.705**	.438**	.477**	1	

1. Sociality : 1-1 Diligence, 1-2 Fellowship, 1-3 Autonomy, 1-4 Law-abiding liability, 1-5 Responsibility, 1-6 Cooperation, 1-7 Empathy understanding
 2. School Adjustment : 2-1 Schoolwork, 2-2 Schoolmate, 2-3 School teacher, 2-4 School life
 3. Eco-resilience : 3-1 Interpersonal relationship, 3-2 Vitality, 3-3 Emotional control, 3-4 Curiosity, 3-5 Optim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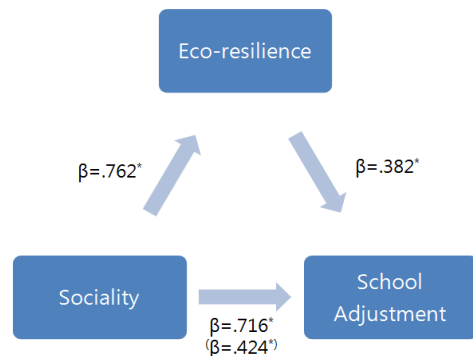
다음으로 사회성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성을 독립변수로 두고, 자아탄력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2단계). 이 결과 사회성은 자아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762, p<.01$). 즉, 대상자의 사회성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회성이 자아탄력성에 갖는 설명력은 57.8%이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성과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자아탄력성을 통제된 상태에서 사회성을 독립변수로 두고, 학교적응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3단계). 이 결과 사회성과 자아탄력성은 모두 학교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beta=.382, p<.01$),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아탄력성을 통제했을 때, 사회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1단계에서 보다 감소하였다($\beta=.424, p<.01$).

따라서 자아탄력성은 사회성과 학교적응 사이에 부분적 매개역할(partial mediating)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4].

매개효과와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Z=4.319, p<.01$),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정한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 2와 같다.



() : control over Eco-resilience

[Fig. 2] Mediated Model

[Table 4] Mediated Effect of Ego-Resilience between Sociality and School Adjustment

Variable	Sch. Adjustment(Step I)				Eco-resilience(Step II)				Sch. Adjustment(Step III)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Sociality	.934	.076	.716	12.335*								
Sociality					.912	.064	.762	14.186*				
Sociality									.554	.110	.424	5.042*
Eco-resilience									.417	.092	.382	4.543*
R ²	.509				.578				.567			
F(p)	152.148**				201.248**				96.697**			

* p<.01 ** p<.001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한부모가정 중학생의 사회성이 학교적응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자아탄력성이 사회성과 학교적응 사이에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한부모가정 중학생의 사회성, 자아탄력성 및 학교적응의 관계를 보면, 사회성과 자아탄력성($r=.762$)은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이는 대상을 달리한 선행연구 Park[7]과 Kim[13]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성의 하위영역 중 공감적 이해와 자아탄력성의 하위영역인 대인관계는 $r=.723$ 으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Park[7]는 한국 아동인성검사(K-PIC)에서 역경적인 상황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잘 적응하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이 대인관계에서 사려 깊고 융통성 있고 능동적으로 행동하였으며,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사회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4 가설검증

사회성과 학교적응 간에도 강한 양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는데($r=.716$),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1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학교적응의 하위영역인 학교친구와 사회성의 하위영역인 공감적 이해는 $r=.716$ 으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친구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감정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인 공감적 이해가 높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은 $r=.706$ 으로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감정통제와 학교친구, 감정통제와 학교교사를 제외한 하위영역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 중 학교적응의 하위영역인 학교친구와 자아탄력성의 하위영역인 대인관계에서는 가장 높은 상관관계($r=.702$)를 보이고 있다. 자아탄력성의 하위영역인 활력성, 호기

심, 감정통제, 낙관성 모두가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 Lee[6]와 Song[15]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따라서, 한부모가정 중학생의 사회성, 자아탄력성, 학교적응 모두 양의 상관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회성이 높으면 자아탄력성이 높고,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학교적응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부모가정 중학생의 사회성 기술이 뛰어날수록 학교적응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16]와 동일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 중학생의 사회성이 잘 길러져 있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 역시 선행 연구들인 Lee[6]의 연구와 Song[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회성보다 자아탄력성($R^2=.567$)이 크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매개효과 분석에 대해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은 사회성과 학교적응 사이에 부분적으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보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Hyun과 Park[17]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사회성이 학생들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어 형성된 긍정적인 자아탄력성이 한부모가정 중학생의 학교적응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자아탄력성은 한부모가정 중학생의 사회성과 학교적응 사이에 큰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부모가정 중학생의 올바른 학교적응을 위한 학교보건의 실천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한부모가정 중학생의 사회성 발달이 학교적응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학교에서는 결손가정 학생들이 사회관계 기술을 훈련할 수 있는 체험 활동을 방과 후 비교과활동시간에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상가정의 또래집단 학생이 결손학생을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 역량을 함양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래집단이 자신도 모르게 결손가정 학생을 업신여기거나 차별하여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는 자신의 가정환경과 다른 결손가정 학생을 친구로서 이해하고 배려하게 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가 강화될 것이다.

셋째, 부재부모로 인한 자아정체감이 상실되어 있는 한부모가정 중학생의 자기가치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즉, 내적통제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통해 수용적이고 자율적이 될 수 있는 자아탄력성을 확장시키기 위한 전문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부모가정 중학생의 학교적응을 위한 실천과제들은 학교와 가정 등 여러 사회환경 속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결손가정 중학생의 건강한 학교적응을 위한 실천 노력은 비행 청소년 발생 예방으로 이어지며, 나아가 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5. 제언

본 연구는 일개 광역시에 재학 중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독립변수 정도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볼 때, 한부모가정 학생과 일반가정 학생의 학교적응에 어떤 변인이 다른지를 파악하여, 발달과정상 겪는 신체 심리 변화와 학업이라는 이중적인 과제를 짊어지고 있는 청소년기의 한부모가정 학생들에게 강점으로 작용할 보호요인을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1] "2011 Divorce · Marriage statistics",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2.

[2] S. D. Hwang, E. H. Park, "The Effect of Parental Attitude and Social Support on School Adjustment amo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Kyungsoong University, Vol. 26, No.

4, pp.123-145, 2010.

[3] S. Y. Jo, "Social Support and School Adaptation of Adolescents from Broken-hom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2011.

[4] Masten, A. S.,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Vol. 56, pp.277-238, 2001.
DOI: <http://dx.doi.org/10.1037/0003-066X.56.3.227>

[5] M. R. Song,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 Neglect and Children's Ego Resilience and School-related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chunhyang University, 2005.

[6] Y. S. Lee, "A Study on School Stress, Self-resilience and School Adaptation of Adolescents: with Female Students at High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4.

[7] Y. M. Park, "The Effects of Children from Low Income Families' Perceived Social Support on Eog-resiliency and Sociality : Focused on Community Child Cent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2010.

[8] M. S. Jung, "The Influence of Family Structure on the Child's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aekseok University, 2009.

[9] S. A. Lee, J. Y. Park, Y. H. Kim, Y. E. Chang, S. Y. Auh, "The Effects of Perceived Family Strength and Ego-resilience on the Adjustment of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to School",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27, No. 2, pp.305-312, 2009.

[10] Y. S. Park,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from Divorced Famil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3.

[11] Kyu-Mee, Lee, "A Study of Middle-School Students' School Adjustment Construc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7, No. 2, pp.383-398, 2005.

[12] Baron, R. M., Kenny, D. A.,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pp.1173-1182. 1986.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51.6.1173>

[13] Ok-seon, Kim, "The Impacts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of Family Strengths Perceived by them and their Ego Resilie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 2005.
- [14] S. J. Kim, "Relationships between Self-esteem, Sociality and School-related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2005.
- [15] H. L. So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roup Ostracizing and Adolescen's Ego-resiliency and School-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2009.
- [16] S. S. Shim, J. B. Ahn, R. Y. Kim, "Influence of Leisure Experiences on Development of Sociality and Adaption of School Life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 20, No. 5, pp.111-127, 2011.
- [17] E. M. Hyun & H. Y. Park, "A Study on the Ego-Resilience and Social Adaptability of the Children and Adolescence in Institutional Car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23, No. 1, pp.21-31 , 2005.

김 현 미(Hyeon-Mi Kim)

[정회원]



- 1991년 2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1년 2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1997년 3월 ~ 2008년 2월 : 대구한의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09년 3월 ~ 2013년 2월 : 대구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13년 8월 ~ 현재 : 시몬정신건강병원 간호사

<관심분야>

정신간호학, 상담